

2016년 유관기관 대기·해양 세미나 개최 결과

【 2016. 10. 20.(목) /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주무관 김태희 】

□ 배경 및 목적

- (배경) 대기·해양 관련기관 간 세미나를 통해 정보의 공유와 기술교류 활성화, 협업 과제 및 대국민 서비스 과제 발굴 등 기관 간 공동 발전 방향 모색
- (목적) 해양 유관기관과 소통을 통해 해양예보의 능동적인 전달을 위한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서로 간의 기술교류 및 해양예보서비스 홍보

□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 2016. 10. 18.(화) 15:00~20:00/부산지방기상청 대회의실(3층)
- 참석대상
 - 외부 :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부산해양경비안전서 등 11개 유관기관 18명
 - 내부 : 부산지방기상청장, 예보과장 등 18명
- 주요내용
 - 대기·해양 관련 과제 발표(4과제), 상호 협력방안 토의

□ 세부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4:40~15:00	20' o 등록	
15:00~15:15	15' o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15:15~16:15	60' o '해양예보소개와 최근 풍랑사례' (부산청 강영범) o '태풍과 해양의 상호작용' (기상청 강기룡)	예보과 해양전문예보관
16:15~16:30	15' o 휴식	
16:30~17:30	60' o '해양예보업무 소개' (국립해양조사원 김호균) o '기후변화연구과 업무현황' (국립수산물과학원 이준수)	해양예보과 기후변화연구과
17:30~17:50	20' o 상호 협력방안 토의	참석기관
17:50~18:00	10' o 폐회 및 기념촬영	
18:00~20:00	120' o 만찬	추후선정

□ 예산

- 소요예산 : 부산지방청 기본경비 위탁사업비(7124-250-210-15)
- ※ 부산청 지역기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및 세미나 행사 대행 용역에 포함 진행

□ 질의 및 토론 내용

○ [국립해양조사원 김호균]

- Q. 고조해일에 관한 내용에서 백중사리 때 천문조가 가장 높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어제와 오늘 사이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의 고조가 더 높음.
- Q. 태풍 말라카스의 진로 예보시 기상청의 태풍진로예보가 일본이나 미해군과 비교해 봤을 때 더 잘 맞았음.
- A. 최근 기상청의 해양예보 수치모델검증 결과 세계 4위, 일본 5위로 일본을 앞서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임, 앞으로 국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음.

○ [해군작전사령부 남대일]

- Q. 해양조사원의 해양예측에서 유선도 자료는 과거자료와 북한자료를 포함하는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 A. 과거와 북한의 자료는 없으며, 자료가 있다면 고려할 수 있음. 모든 자료는 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음.
- Q. 최근 태풍 차바의 진로는 이상진로인지? 왜 남해안을 스치고 지나갔는지?
- A. 태풍의 진로는 매우 다양하며, 과거 똑같은 진로인 태풍은 하나도 없었음. 비슷한 진로는 있으며 월별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에 따른 평균적인 진로는 존재함. 대부분 10월의 태풍은 일본 남쪽해상으로 지나가는 편이지만 차바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일시적으로 북쪽으로 평년보다 확장하면서 부산에 상륙하는 진로를 나타내어 매우 높은 파고, 강풍, 호우 등을 기록함.
- Q. 엘니뇨와 라니냐 해의 태풍의 발생위치와 강도의 차이는?
- A. 엘니뇨 해에는 태풍이 강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해양의 열용량이 더 크기 때문임. 라니냐 해에는 상대적으로 태풍이 발생하는 위치상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진로가 될 가능성이 더 많음. 라니냐해의 태풍은 진로상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올해 상반기에는 태풍 발생 자체가 적었고,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평년보다 훨씬 강했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성순]

- Q. 일본의 해양기상자료에 대한 신뢰는 습관적인 것인지?
- A. 과거부터 일본의 해양기상정보를 활용해오던 어민들은 일본자료를 신뢰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음. 기상청의 해양기상정보는 많은 발전이 있었고, 현재는 일본의 자료에 뒤지지 않음. 기상청의 자료 활용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더 노력할 것임. 또한 최근 5년의 태풍 진로예측에 대한 오차를 각 나라별로 분석하였을 때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며, 중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또한 일본보다 태풍의 진로예측 정보를 먼저 발표하고 있음.

Q. 기상청과 해양조사원에서 같이 부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측자료의 통합적 운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자료나 결과의 차이로 혼선은 없는지?

A. 현재 기상청에서는 타 기관의 부이 자료도 공유하여 해상의 예보특보 운영시 참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측망도 확충할 계획임. 부이 뿐 아니라 각 기관마다 레이더 등 같은 장비를 따로 운영하는 경우는 많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운영은 불필요해 보이지만, 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은 유익한 것으로 보임. 각 기관별로 운영목적과 관측자료를 활용한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혼선은 없으며 넓은 해상에서 같은 장소에 설치된 부이는 현재까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임. 아직도 해상의 관측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Q. 최근 마리나 시설로 인해 외국의 요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음 우리나라의 정보를 외국인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음.

A. 영문의 홈페이지가 있으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스마트 폰 앱 정보제공 등은 민간사업자의 영역이라 기상청에서의 개발이 금지되어 있어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정신]

Q. 광주지방 기상청의 특화사업으로 뱃멀미 지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뱃멀미 지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인지?

A. 기상청의 뱃멀미 지수와 조사원의 뱃멀미 지수는 산출되는 요소가 틀리며, 다른 것임.

Q. 지난 4월 남외항 묘박지에 선박좌초 사고가 있었는데, 원인과 대책은?

A. 올해 봄철 급격한 저기압의 발달로 강한 남서풍이 불면서 파고가 높은 사례가 많았었는데, 4월에는 영도 해안에 선박이 좌초되었음. 이 선박은 기관고장으로 엔진시동을 걸 수 없어 좌초된 것이며, 사고 이전에 기상청에서는 해경상황실, VTS 등에 해양위험기상을 전달 하였고, 대비 조치를 하였음. 하지만 남외항 묘박지는 남서풍에 취약하며 기관고장 등 선박들이 방치되어 있는 면이 있어 사고가 잦으며, 개선을 위해 부산해경 주최로 대책 회의를 하였음. 이후 5월에 비슷한 해양 위험기상 발생시는 대처가 더 효율적으로 잘되어 사고가 없었음.

○ [해군작전사령본부 윤광식]

Q. 이번 태풍 차바를 약한 소형 태풍으로 예보하였으나 강했는데?

A. 태풍 차바는 강도 중, 소형 태풍으로 지날 것으로 예상하였음, 크기가 소형이라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진로에 대한 예측은 2일 이상 전부터 남해안을 스치듯

지날 것으로 예측되어 잘된 것으로 판단됨. 태풍의 진로예측은 70% 위험반경으로 예보 되므로 이해를 잘하고 활용해주시기 바람. 항상 태풍은 아무리 약해도 위험하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김성권]

Q. 최근 경제수준이 좋아지면서 해양 레저객이 급증하여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음. 해양예보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으며, 해양조사원의 해로도 앱 등은 활용도가 뛰어나므로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A. 국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하겠음.

○ [마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윤수진]

Q. 태풍 차바가 초기 예측과 달리 남해안에 근접하여 지난 이유는?

A. 태풍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데, 이번에는 평년보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남해안을 스치듯 태풍이 이동하였음. 남쪽 해상의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높아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북상하였음.

□ 세미나 사진





□ 언론 보도

[포토뉴스] 대기-해양 세미나

입력 : 2016-10-19 [19:08:40] 수정 : 2016-10-19 [19:08:40] 게재 : 2016-10-20 (34명)

부산지방기상청(청장 임병숙)은 지난 18일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관리원 등 해양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대기-해양 세미나'를 개최했다.

□ 참석자 서명

2016년 유관기관 대기-해양 세미나 (2016. 10. 18(화) 15:00 ~ 18:00 /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연번	기 관	부서(직위)	성 명	서 명
1	기상청 예보과	연구관	강기훈	강기훈
2	국립해양조사원	김호준		김호준
3	국립수산물관리원	이준수		이준수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윤성준	윤성준
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관	김광진	김광진
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관	김병기	김병기
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관	김병기	김병기
8	남해해양경찰청	상무팀장	김성민	김성민
9	남해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계장	손성민	손성민
10	부산선상 VTS	주무관	박건호	박건호
11	부산선상 VTS	주무관	박건호	박건호
12	부산선상 VTS	주무관	박건호	박건호
13	부산선상 VTS	주무관	박건호	박건호
14	부산선상 VTS	주무관	박건호	박건호
15	부산선상 VTS	주무관	박건호	박건호
16	부산선상 VTS	주무관	박건호	박건호
17	부산선상 VTS	주무관	박건호	박건호
18	부산선상 VTS	주무관	박건호	박건호
19	부산선상 VTS	주무관	박건호	박건호
20	부산선상 VTS	주무관	박건호	박건호
21	부산선상 VTS	주무관	박건호	박건호
22	부산선상 VTS	주무관	박건호	박건호
23	부산선상 VTS	주무관	박건호	박건호
24	부산선상 VTS	주무관	박건호	박건호
25	부산선상 VTS	주무관	박건호	박건호

지도를 연구자, 국장, 국장, 국장